

‘먹다’류 어휘의 역사적 변천과정

- 각 어휘들의 변천과정과 시대별 품사적 특징 및 어휘의 조합관계를 중심으로

한승*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먹다’ 의미 어휘의 시기별 演變상황
 - 1. 상고(先秦~兩漢)시기
 - 2. 중고(魏晉南北朝)시기
 - 3. 당송(唐宋)시기
 - 4. 원명청(元明清)시기
 - III. 현대방언 분포상황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먹다’ 개념을 지닌 동사들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중국에는 ‘먹다’류 어휘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이 이미 나와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먹다’류 동사의 변천과정에 관한 기존 논문들(1) 읽어 본 결과 대부분이 현대에 ‘먹다’ 의미의 동사로 가장 많이 쓰이는 ‘吃’이 과거에 ‘먹다’류의 주도동사였던 ‘食’을 교체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을 뿐 ‘吃’과 ‘食’의 시대별 품사적 특징이나 이들과 기타 어휘와의 조합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徐時儀(2007)는 “쇠퇴 혹은 쇠퇴 준비 단계에 놓여 있는 어휘(주로 文言文 어

* 한양대학교 중어중문과 강사

1) 李玉嬌 〈試論由“食”到“吃”的演變過程〉: 《江西金融職工大學學報》 2006年第2期。王青, 薛遜 〈論“吃”對“食”的曆時替換〉: 《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5年第5期。貢珂 〈飲食義“吃”對“食”的曆時替換〉: 《才智》 2009年。王國珍 〈“喫”“食”“飲”曆時替換的不平衡性及其認知〉: 《古漢語研究》 2010年第1期。

휘)는 더 이상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점점 불완전 형태소가 되어 주로 당시 주도동사인 단음절 동사와 결합하여 동의병렬식 합성어를 형성해 내는 보조역할을 한다”고 하였다.²⁾ 그의 주장처럼 오늘날 쇠퇴한 古語들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용례는 보기 드물고 대부분이 예를 들면, ‘搶劫’, ‘挖掘’, ‘採摘’, ‘砍伐’, ‘學習’ 등과 같은 동의병렬식 합성어로 존재한다. 하지만 ‘먹다’류의 古語인 ‘食’의 현대적 특징은 다른 古語들과 상이하다. 물론 현대 중국어에 동의병렬식 합성어인 ‘吃食’의 용례가 존재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오늘날 ‘食’은 동의병렬식 합성동사를 형성해 내는 불완전 형태소가 아니고 주로 ‘食堂’, ‘食品’, ‘糧食’, ‘面食’, ‘食物’, ‘食器’, ‘食盒’ 등의 명사를 형성해 내는 형태소로 사용되고 있다. ‘食’의 동사용법은 閩語, 粵語, 客家 방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이에 연구자는 ‘食’이 쇠퇴한 주요한 원인이 변천과정에서 ‘食’의 동사용례는 줄고 명사용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이를 밝혀내기 위해 ‘먹다’ 류 어휘를 재연구하게 되었다.

사실 어휘의 현대적 특징은 근대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명청시기 때 거의 결정되어 계승된다. 그러므로 ‘食’이 현대에 주로 명사용법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것이 최소한 명청시기부터는 거의 명사용법으로 전환되어 현대까지 계승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논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食’의 각 시대별 품사적 특징과 그것이 주로 명사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구체적인 시기를 연구해 볼 것이며 현대 상용어인 ‘吃’에 대해서는 최초의 어원을 분석하고 그것이 ‘食’을 교체하고 주도동사가 된 원인도 알아볼 것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으로는 ‘먹다’류 어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古語인 ‘食’과 新語인 ‘吃’ 외에 ‘飯’도 첨가할 것이다. 고대문헌 연구를 통해 ‘飯’이 ‘食’과 함께 ‘먹다’ 의미의 동사로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飯’도 현재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飯’이 정확히 언제부터 완전한 명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할 필요를 느껴 이 역시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³⁾

2) 徐時儀《漢語白話發展史》(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269쪽.

3) 사실 ‘먹다’류 어휘로는 ‘吃’, ‘食’, ‘飯’ 외에도 ‘啖’, ‘嘗’ 등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인 ‘먹다’ 개념을 지닌 동사가 아니다. ‘啖’은 한꺼번에 삼키는 동작이고 ‘嘗’은 맛을 분별하기 위해 가볍게 먹는 동작이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음식물 혹은 음료를 섭취하는 행위’에 대한 연구를 중점사항으로 삼았으므로 만약 일반적인 ‘먹다’ 개념을 지닌

본고에서 연구하려는 통시적 범위는 고대에서 청초까지이고 각 시대별로 구어체적 성격이 강한 총 34권의 대표문헌⁴⁾을 선정하여 각 문헌별로 본고의 연구대상인 '吃', '食', '飯'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조사하고 그것들의 사용상황에 대한 통계를 내어 新古語의 교체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명조 이후의 문헌은 방언별(北方(山東, 北京)방언, 江淮방언, 吳語방언)로 선별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남북방 방언의 특색을 알아보고 어휘들이 당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천 및 계승되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吃'은 '完', '光', '飽', '下' 등의 보어들과 결합하는데, 이들의 결합을 연구하여 동사와 보어의 결합관계와 그 내부규칙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고, 더불어 '먹다'류 동사의 어법구조의 관계에 대해서도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II. '먹다' 의미 어휘의 시기별 演變상황

1. 상고(先秦~兩漢)시기

최초 상고시기에 '먹다' 개념을 지닌 동사로 '食'과 '飯'이 존재하였다.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 상고시기에 '食'과 '飯'은 명사적 용법보다는 주로 '먹다'의 의미의 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래의 통계수치를 보면 당시에는 '食'이 주도동사였음을 알 수 있다.

(표1)

	韓非子	論語	莊子	史記	論衡
食	동사:61 명사:39	동사:25 명사:14	동사:55 명사:17	동사:207 명사:180	동사:306 명사:181
飯	동사:8 명사:3	동사:3	동사:2 명사:2	동사:14 명사:11	동사:22 명사:1

동사가 아닌 '啖'과 '嘗'을 연구대상에서 포함시키면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배제하였다.

4) 참고한 語料庫: 漢籍全文語料庫, 古漢語語料庫, 近代漢語標記語料庫

《說文》食部)에 따르면 ‘飯’의 본의는 “食也”이다.⁵⁾ 상고시기에 ‘飯’은 명사용례⁶⁾도 존재하였으나 대부분이 원래 ‘먹다’의미의 동사용법으로 사용되었다.

- (1) 子曰：“飯疏食飲水，曲肱而枕之，樂亦在其中矣。”(《論語·述而》)
 (공자가 말하기를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베고 누워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에 있다.”)
- (2) 百裏奚爵祿不入於心，故飯牛而牛肥，使秦穆公忘其賤，與之政也。(《莊子·田子方》)
 (진나라의 현인 百里奚는 벼슬이나 녹봉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소에게 먹이를 먹여서 사육하면 소가 살이 찼다. 진나라 穆公은 그의 천한 신분을 잊고서 그와 함께 정사를 펼쳤다.)

‘食’은 《說文》食部)에 따르면 “一米也”⁷⁾이다. 즉 ‘食’의 본의는 ‘쌀 한 톨’이다. 따라서 ‘食’은 원래 명사였던 것이다. 상고시기 당시 ‘食’의 명사적 용법으로는 위의 예문(1)에서의 ‘飯’의 목적어인 ‘疏食’ 외에도 아래의 예문(3),(4)와 같은 단음절 동사로서의 ‘食’과 ‘糧食’의 용례가 있었는데 이들의 의미는 ‘곡식’ 혹은 ‘식량’이었다.

- (3) 君其出令，令民自遺三年之食，有餘粟者入之倉。(《韓非子·十過》)
 (군주는 백성들에게 3년 먹을 식량만 남기고 남은 곡식은 정부에 바치도록 명령하였다.)
- (4) 襄子謂張孟談曰：“糧食匱，財力盡，士大夫羸病，吾恐不能守矣，欲以城下，何國之可下？”(《韓非子·十過》)
 (襄자가 張孟談에게 말하기를：“양식도 모자라고 재력도 다하고 장병들이 여의고 병들었다. 아무래도 끝내 지키지 못할 것 같아 항복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나 당시에 ‘食’은 명사보다는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의 용례가 더 많았다.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飯’의 동사용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먹다’의미를 충족하기 위

5) 【漢】許慎 撰【清】段玉裁 注《說文解字注》上(鄭州，中州古籍出版社，2006)，220쪽.
 6) 연구자의 조사결과 상고시기에 ‘飯’의 명사적 용례들은 모두 앞에 어떤 수식도 받지 않는 단음절 형식이었다. 이 어휘들은 모두 ‘밥’을 지칭하였다.
 7) 【漢】許慎 撰【清】段玉裁 注《說文解字注》上(鄭州，中州古籍出版社，2006)，218쪽.

해 ‘食’이 명사에서 동사로 빠르게 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食’의 동사용법은 아래와 같다.

- (5) 子曰：“女奚不曰，其爲人也，發憤忘食，樂以忘憂，不知老之將至云爾。”
 (《論語·述而》)
 (공자는 “너는 어찌 그 사람이 자신이 늙어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분발하여 식사할 것을 잊고, 도를 즐긴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 (6) 蟲墮一器，酒棄不飲；鼠涉一筐，飯捐不食。(《論衡·幸偶篇》)
 (벌레가 술 단지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안 마시고 버렸다. 쥐가 광주리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그 밥을 안 먹고 버렸다.)
- (7) “姊去我西時，與我決於傳舍中，丐沐沐我，請食飯我，乃去。”(《史記·外戚世家》)
 (“누이가 저와 역참(驛站)의 숙박소에서 헤어져 서쪽으로 갔습니다. 누이는 쌀 씻은 물을 구해다가 저의 머리를 씻어 주었으며, 또 밥을 구해다가 저를 먹인 후에 갔습니다.”)
- (8) 申徒狄諫而不聽，負石自投於河，爲魚鱉所食。(《莊子·盜跖》)
 (주나라의 현자였던 申徒狄은 임금에게 간언했으나, 임금이 이를 듣지 않자,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황하에 투신하자 물고기의 밥이 되었다.)
- (9) 狄人攻哀公而殺之，盡食其肉，獨舍其肝。(《論衡·儒增篇》)
 (오랑캐들이 애공을 습격하여 그를 죽인 후 그의 육신을 다 먹었다. 유독 그의 간만 버렸다.)
- (10) 徐無鬼曰：“無鬼生於貧賤，未嘗敢飲食君之酒肉，將來勞君也。”(《莊子·徐無鬼》)
 (이에 徐無鬼가 대답했다. “저는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태어나 이제껏 임금님의 술과 고기를 마시고 먹어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임금님을 위로하러 왔을 뿐입니다.”)

상고시기 당시에 ‘食’이 동사로 발전하였을 때 그 단음절 형식인 ‘食’으로 ‘쌀을 먹다(혹은 식사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즉 ‘食’의 본래 어원인 ‘쌀’에 ‘먹다’ 의미가 가미된 것이다. 예문(5)에서의 ‘食’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食’의 특징은 예문(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먹다’의 의미만 내포하고 목적어와는 분리되었다. 당시의 어법구조를 살펴보면 예문(6)에서의 ‘不+V’ 구조로 화자의 능동적 의지를 나타내었고, 예문(7)에서의 ‘V+N2+N1’ 구조로 사동표현으

로 쓰였다. 고대 중국어에는 주로 'V(혹은 V+N2)+N1' 구조로 'N1으로 하여금 V 하게 하다'라는 사동표현을 나타내었다. 당시의 피동형식으로는 예문(8)에서 보는 바와 같이 '爲+人+所+V' 구조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예문(9)에서의 '盡食'은 상고시기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李宗江(1999)은 상고시기에 '盡', '畢', '已', '卒' 등이 동사 앞에 붙어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부사어 역할을 하였지만 훗날 "先 동작 - 後 결과"라는 시간 순서의 원칙에 따라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盡', '畢', '已', '卒' 등의 부사어들이 동사 후미로 가게 되어 'V+C' 술보구조가 생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盡食'은 '吃完'의 옛 문법구조인 것이다.⁸⁾ 상고시기에 이음절 형식으로는 '飲食'이라는 단 하나의 용례가 존재하였다. 당시 '飲食'은 명사적 용법과 동사적 용법이 동시에 존재하였으나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⁹⁾ 위의 예문(10)을 보면 '飲食'의 목적어가 '酒肉'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飲'의 주요 지배대상이 액체인 반면 '食'의 주요 지배대상이 고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 중고(魏晉南北朝)시기

위진남북조시기에도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食'이 여전히 주도동사였다. 이 시기에 변화된 상황은 '飯'의 동사용법이 많이 쇠퇴하였고, 새로운 어휘인 '吃'이 등장한 것이다. 위진남북조시기 '먹다'의미의 동사들의 사용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2)

	三國志	搜神記	搜身後記	世說新語	齊民要術
食	동사:106	동사:84	동사:6	동사:34	동사:419
	명사:91	명사:32	명사:5	명사:24	명사:98

8) 조사결과 상고시기 '食'이 '盡'과의 결합 외에 다른 '畢', '已', '卒' 들과 결합된 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李宗江 《漢語常用詞演變研究》(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9), 39 쪽.

9) 조사결과 '飲食'은 《韓非子》에 동사 3개의 용례, 명사 2개의 용례가 존재하고, 《莊子》에는 동사와 명사의 용례가 각각 2개씩 존재한다. 《史記》에는 동사 17개의 용례와 명사 9개의 용례가 존재하고, 《論衡》에는 동사 29개의 용례와 명사 12개의 용례가 존재한다.

飯	동사:3 명사:7	동사:0 명사:5	동사:0 명사:0	동사:2 명사:11	동사:2 명사:104
吃	동사:0 명사:0	동사:0 명사:0	동사:0 명사:0	동사:0 명사:0	동사:1 명사:0

1) '飯'과 '食'의 특징

위진남북조시기의 어휘와 어법구조는 전대의 특징을 그대로 계승한 모습과 발전된 모습을 동시에 엿볼 수 있었다.

- (11) 作寒食漿法：以三月中清明前，夜炊飯，雞向鳴，下熟熱飯於甕中，以向滿爲限。(《齊民要術》卷第九)
(한식 즘음에 만드는 장: 3월 중순부터 청명절 전에 주로 밤에 밥을 짓는다. 닭이 울어 날이 밝을 무렵에 뜨겁게 데워진 더운밥을 항아리에 가득 차도록 넣는다.)
- (12) 庾從周索食，周出蔬食，庾亦強飯，極歡。(《世說新語·尤悔》)
(庾亮은 周子南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자 周子南은 변변치 않은 음식들을 내왔다. 그러나 庾亮은 음식을 먹을 때 매우 맛있게 먹으며 만족감을 보였다.)
- (13) 糧乏，僞與賊和，以牛與賊易食，賊來取牛，牛輒奔還。(《三國志·魏書·許褚傳》)
(양식이 바닥이 나서 적들과 화친을 맺는 척하고 적들과 거래를 하였다. 소와 양식을 바꾸었다. 적들이 소를 가져갔는데 그 소는 스스로 우리 쪽으로 되돌아왔다.)
- (14) 潘陽仲見王敦小時，謂曰：“君蜂目已露，但豺聲未振耳。必能食人，亦當爲人所食。”(《世說新語·方正》)
(潘陽仲은 王敦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눈빛은 이미 말벌과 같이 씩씩해 보이지만 아직 승냥이와 같은 굶은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구나. 명심해라. 너는 반드시 사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혹은 사람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다.”)
- (15) 其人貪戲，但飲酒食脯。(《搜身記》卷三)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장기를 두는 데에 몰입해 있다.)

예문(11)~(12)를 살펴보면 '飯'은 전대에 비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앞에 '熱'의 수식을 받은 '熱飯'이라는 명사어휘가 출현하였으며, '強飯'¹⁰⁾이라는 동사어휘

역시 새롭게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문(12)~(14)에서의 ‘食’은 전대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즉 예문(12)에서의 단음절 목적어인 ‘食’과 ‘蔬食’, 예문(13)에서의 단음절 목적어인 ‘食’은 모두 ‘곡식’ 혹은 ‘양식’ 의미의 명사용례로 전대에 이미 출현했었던 특징들이고 예문(14)에서의 ‘爲+人+所+V’ 구조도 전대에 이미 존재했던 특징들이다. 예문(15)에서의 ‘飲酒食脯’라는 두 개의 병렬된 동목구조는 비록 전대의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대의 문헌인 《莊子·知北游》에서의 ‘不飲不食’ 구문과 흡사한 점으로 보아 이는 전대에서부터 계승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가 생각할 때 ‘飲酒食脯’구조와 이음절 합성어인 ‘飲食’¹¹⁾은 ‘食’이 ‘飲’과 달리 주요하게 고체 목적어를 지배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¹²⁾

(16) 遊便飽食而歸，安然無他。(《搜身後記》卷二)

(그들은 배불리 먹은 후에 무사히 돌아갔다.)

(17) 權特賜米酒衆肴，寧乃料賜手下，百餘人食。食畢，寧先以銀碗酌酒，自

飲兩碗，乃酌與其都督。(《三國志·吳書·程黃韓蔣周陳董甘凌徐潘丁傳》)
(孫權은 甘寧에게 미주와 많은 음식들을 주었다. 그러자 甘寧은 자신의 백여명의 부하들에게 음식들을 나누어 주어 먹게 하였다. 부하들이 음식을 다 먹은 후에 甘寧은 은사발로 먼저 자신이 마신 후에 그의 도독에게 술잔을 건네었다.)

(18) 烝豚肥美，異於常味。帝怪而問之，答曰：“以人乳飲豚。”帝甚不平，食畢，便去。(《世說新語·汰侈》)

(돼지고기를 삶으니 육질이 부드러우며 신선하다. 다른 고기에서 느끼지 못했던 독특한 맛이 난다. 황제가 이를 기이하게 여겨 그 연유를 물으니, 王武子는 “사람의 모유를 먹여 키운 돼지입니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불

10) 《辭海》을 참고한 결과 ‘強飯’은 ‘努力加餐’과 ‘勉強進食’이라는 의미가 있다. 위의 (12) 예문에서의 ‘強飯’은 ‘努力加餐’ 의미에 가깝다.

11) 중고시기의 ‘飲食’ 용례에 대한 조사결과 《搜神記》에 동사 9개, 명사 5개가 존재하고, 《三國志》에는 동사 11개와 명사 7개가 존재하며, 《世說新語》에는 동사 3개와 명사 2개가 존재한다.

12) 연구자의 조사결과 ‘食’은 거의 다 고체 목적어를 취하나 간혹 액체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ex) 食其膚，可以不飢；食其汁，則愈渴。《齊民要術·卷第十》 ‘食’이 액체 목적어를 지배하는 경우는 전대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시기에 《齊民要術》에서 단 한 개의 용례만 발견되었다.

꽤히 여겨 다 먹지 않고 갔다.)

(19) 碩食二枚, 欲留一, 不肯, 令碩食盡. (《搜身記》卷一)

(張碩은 두 개를 먹었다. 한 개는 남기려 하였으나 그녀가 원치 않자 나머
지 하나도 다 먹어버렸다.)

예문(16)에서 ‘飽食’ 용례는 이 시기에 처음 출현하였다. 이 어휘 역시 전대의 ‘盡食’과 마찬가지로 ‘食’의 앞에 위치한 ‘飽’는 동작 후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므
로 ‘飽食’은 ‘吃飽’로 해석된다. 예문(17)~(19)는 ‘食’의 발전된 특징이다. 邱冰
(2011)은 “술보구조가 최초 중고시기부터 생성되기 시작했다.”¹³⁾고 언급하였다. 그
의 주장대로 이 시기부터 ‘食’은 ‘畢’ 혹은 ‘盡’과 같은 보어와 결합하여 ‘食畢’, ‘食
盡’과 같은 술보구조를 생성해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술보구조는 전대의 ‘盡食’에서
부터 발전된 것이다.

2) ‘吃’의 생성

(『說文』口部)에 따르면 ‘吃’의 본의는 “言蹇難也”이다.¹⁴⁾ 즉, ‘吃’의 본의는 ‘말을
더듬는다(被問寒戰, 形气啞吃 <三國志·卷65>)’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동일하다. 당시에 ‘먹다’ 의미의 ‘吃’은 《齊民要術》에 단 한 개의 용례만 존
재하였다.

(20) 十五日後, 方吃草, 乃放之. (《齊民要術》卷第六)

(십오일 후에 풀을 먹이고 양들을 풀어주었다.)

3. 당송(唐宋)시기

당송시기에 이르러 어휘의 사용상황에 큰 변화가 생겼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飯’의 동사용법은 거의 쇠퇴하였고, 주로 명사로 사용되었다. 위진남북조시기에 생
성된 ‘吃’의 출현빈도는 당조시기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食’과 경쟁을 하였고, 당오
조시기에 ‘吃’은 ‘食’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주도동사가 되었다. ‘食’은 당오조시기

13) 邱冰 《中古漢語詞彙複音化的多視角研究》(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11), 36쪽.

14) 【漢】許慎 撰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上(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6), 59쪽.

부터 각 문헌마다 명사용례가 동사와 수량 상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어느 문헌에서는 명사용례가 동사에 비해 월등히 많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부터 ‘食’의 동사용례가 쇠퇴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당시에 어휘의 면모와 어법의 특징이 전대에 비해 약간은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고대시기의 특징들이 많이 잔존하였다. 당송시기 ‘먹다’류 동사들의 사용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3)

	文獻	吃	食	飯
唐代	廣異記	동사:1 명사:0	동사:111 명사:48	동사:0 명사:11
	獨異志	동사:0 명사:0	동사:47 명사:9	동사:0 명사:0
	玄怪錄	동사:4 명사:0	동사:25 명사:17	동사:0 명사:0
五代	入唐求法巡禮行記	동사:75 명사:0	동사:3 명사:52	동사:0 명사:75
	敦煌變文集新書	동사:63 명사:0	동사:80 명사:141	동사:1 명사:76
宋代 文獻	大宋宣和遺事	동사:12 명사:0	동사:40 명사:32	동사:0 명사:5
	五燈會元	동사:388 명사:0	동사:73 명사:71	동사:1 명사:245
	夢溪筆談	동사:2 명사:0	동사:55 명사:41	동사:1 명사:7
	古尊宿語錄	동사:425 명사:0	동사:41 명사:53	동사:1 명사:282
	獨醒雜志	동사:2 명사:0	동사:18 명사:12	동사:0 명사:7

1) ‘飯’과 ‘食’의 특징

당송시기에 ‘食’은 기존(상고~중고시기)의 특징과 새로운 특징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 ‘飯’은 대부분이 명사로 쓰였고 그 형태도 다양해 진 반면 ‘飯’의 동사용법은 소수에 불과했다.¹⁵⁾

15)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飯’의 다양해 진 형태를 본고의 예문에 기재하지는 못했지만 연구자의 조사결과 당송시기에 ‘飯’은 피수식어로 여러 명사의 수식을 받아 형성되었다.

- (21) 日飯一石米，隨即痢之，饑復如故。(《夢溪筆談》卷二十一)
 (매일 쌀 한 섬을 먹으나 곧바로 설사한다. 그래서 밥을 굶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 (22) 乃令唐氏市肉，佛自設食，次以授僧及家人，悉食。食畢，忽見壇上是趙門福，舉家歎恨，爲其所誤。(《廣異記·唐參軍》)
 (佛自는 당삼군이 사온 고기를 스님과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고기를 다 먹었을 때 갑자기 재단에 앉아 있는 趙門福이 눈에 띄었다. 온 가족은 탄식하고 분노하였는데 그 이유는 趙門福에게 농락당했기 때문이다.)
- (23) 泣謝曰：“道業雖成，准例當死，爲人所食，無計復生。(《玄怪錄》卷四)
 (울면서 고하기를 “비록 도업은 이루었으나 예법에 따라 마땅히 죽어야 하며 그 육신이 사람들에게 먹혀져야 하니 살 방도가 없습니다.”)
- (24) 卽遣二婢取其氈被，並將酒肉飲食來。(《敦煌變文集新書》卷八)
 (즉시 여자 노비 둘에게 깔 것을 가져오게 하여 그 위에 술과 고기를 놓고 식음하였다.)
- (25) 時帝終日下拜，又飲食不進，驚皇不安。(《大宋宣和遺事·利集》)
 (전하께서 종일 절만 올리고 식음을 안 하시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飯’은 소수의 동사의 용례만 남은 채 거의 다 명사로 전환하였다. 예문(21)을 보면 ‘飯’ 뒤에 목적어인 ‘一石米’가 ‘수량사+명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시기 새롭게 생겨난 어법구조이다. 우리는 이 어법구조를 통해 ‘飯’의 용법을 더욱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예문(22)~(23)에서의 ‘食’의 특징은 전대와 거의 유사하다. 예문(22)에서의 명사용법인 ‘食’과 술보구조인 ‘食畢’, 예문(23)에서의 피동형식인 ‘爲+人+所+V’ 구조는 전대에 이미 존재했던 특징들이다. 전대에는 단음절 명사용례인 ‘食’은 ‘곡식’, ‘양식’의 의미였는데 위의 예문(22)에서의 ‘食’의 지칭은 ‘고기’이다. 즉 당송시기부터 ‘食’의 명사용례가 많아짐에 따라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도 넓어진 것이다. 그리고 예문(24)~(25)에서의 ‘飲食’ 역시 고대부터 줄곧 계승되어 온 어휘이다. 董秀芳(2002)은 “병렬식 이음절 합성동사는 다른 품사들에 비해 명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렇게 동사에서 명사로 전환된 대부분의 어휘들은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다른 의미로 굳어진다.”고 하였다.¹⁶⁾ 그의 주장대로 당송시기의 ‘飲食’의 용법(통계는 아래

예를 들면, ‘麥飯’, ‘粥飯’, ‘米飯’ 등이 있었다.

각주 참조)¹⁷⁾을 조사한 결과 원래의 ‘마시고 먹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용법은 거의 사라졌고, 거의 대부분이 ‘음식’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용례로 존재하였다. 이는 ‘飲食’이 고대까지는 동사와 명사의 용법을 겸했지만 당송시기에 이르러 거의 동사에서 명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 (26) 九日，齋前法相請益戒明法師及從僧等相尋登來，共於食堂吃齋。(《入唐求法巡禮行記》卷第二)
 (구일 췌 되는 날 점심식사 전에 法相은 益戒明法師와 그를 따르는 승들을 식당으로 불러서 그들 모두에게 채소 먹기를 권하였다.)
- (27) 食器有七子螺、九枝盤、紅螺杯、菓葉碗。(《廣異記·汝陰人》)
 (식기 안에는 七子螺、九枝盤、紅螺杯、菓葉碗 등이 있었다.)
- (28) 擬向溪西牧，亦不免食他國王水草。(《五燈會元》卷三)
 (소에게 사내 서쪽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하니 또 다른 나라 왕의 수초를 뜯어 먹게 되었다.)
- (29) “將食與人也不惡。”(《古尊宿語錄》卷十八)
 (“먹을 것을 타인에게 주었다고 시기하지 마라.”)

예문(26)~(27)에서의 ‘食堂’과 ‘食器’는 이 시기에 처음 출현한 어휘이다. 당송시기부터 ‘食’이 명사수식어로서 다른 명사를 수식하여 형성된 ‘食堂’, ‘食器’와 같은 명사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예문(28)에서의 ‘食他國王水草’라는 전형적인 취득동사의 이중목적어 구문과 예문(29)에서의 수여구문인 ‘將+O2+與+O1’도 당송시기에 새롭게 출현한 어법구조이다. 전대에는 관련 예문이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실 ‘먹다’는 ‘취득류 동사에 속한다. ‘취득류 동사의 문장구조는 ‘S(행위자/得者)+V+O1(본래 소유자/失者)+O2(물건)’이다. 이 구문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어의 동작 완료 후 ‘본래 소유자’의 위치에 있었던 ‘물건’은 ‘주어

16) 董秀芳 《詞彙化：漢語雙音詞的衍生和發展》(四川，四川民族出版社，2002)，139-142쪽.

17) 당송시기의 ‘飲食’ 용례에 대한 조사결과 《廣異記》에 명사 5개, 동사 1개가 존재하고, 《敦煌變文集新書》에는 동사 23개, 명사 4개가 존재하고, 《古尊宿語錄》과 《五燈會元》에 각각 5개의 명사가 존재한다. 《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3개의 명사 존재하고, 《夢溪筆談》에는 9개의 명사가 존재하며, 《大宋宣和遺事》에는 명사 12개와 동사 4개가 존재한다.

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므로 주어는 ‘得者’가 되고, O1(간접목적어)은 ‘失者’가 된다.¹⁸⁾ 따라서 예문(28)에서의 ‘他國王’은 ‘본래 소유자 혹은 失者’이고, 주어의 동작 완료 후 ‘水草’는 주어의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¹⁹⁾ 예문(29)의 ‘將+O2+與+O1’은 당송시기에 새롭게 출현한 수여구문이지만 ‘食’의 명사용법은 고대로부터 그대로 계승된 특징이다. 고대에 ‘食’은 ‘수여’류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명사용법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아래 각주11에서 언급한 ‘未語而君與之食’와 앞에 서술한 예문(3)의 ‘遺三年之食’ 등은 고대의 ‘수여’류 이중목적어 구문이다. 이 구문들을 봤을 때에 고대에도 ‘食’은 명사용법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2) ‘吃’의 발전과 ‘吃’이 ‘食’을 교체한 원인

당조시기부터 ‘吃’의 출현빈도는 높아지기 시작하여 당오조 시기에 완전히 ‘食’을 교체하고 주도동사가 되었다. 이 시기에 ‘吃’의 출현빈도는 비록 많아졌지만 어휘와 어법의 특징이 아직 현대중국어에 가까울 정도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30) 子胥既見此言，即令兵衆飽食。兵事食訖。其兵吃食飽足，精神踴躍。(《敦煌變文集新書》卷五)

(子胥는 이 글을 보고 곧바로 병졸들을 배불리 먹게 하였다. 그들은 배불리 먹은 후에 기운이 솟아났다.)

(31) 吃茶之後，入涅槃道場，禮拜涅槃相。(《入唐求法巡禮行記》卷第二)

(차를 먹은 후에 열반도량에 들어가서 열반상에 예를 갖추어 절했다.)

(32) 贖解不曾休，吃灑、吃肉何曾夢？(《夢溪筆談·譏諍》)

(집안에 자금이 부족해서 전당포에 갔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우리가 꿈속 에라도 감히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

(33) 吃鹽聞鹹吃醋聞酸。(《古尊宿語錄》卷二十一)

(소금을 먹고 짠맛을 느꼈고, 식초를 먹고 신맛을 느꼈다.)

18) 張美蘭《漢語雙賓語結構》(北京，清華大學出版社，2014)，122-124，217쪽.

19) 사실 ‘취득’류와 ‘수여’류 동사 모두 ‘V+O1+O2’라는 이중목적어 구문을 취한다. 이러한 구문은 고대에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취득류: ‘奪之璽而免之令.’《韓非子·外儲說左下》, 수여류: ‘未語而君與之食’《韓非子·說林上》등이 있다. 그러므로 예문(27)에서의 이중목적어 구문은 당송시기에 생성된 새로운 구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연구자가 조사한 고대의 문헌에서는 ‘食’의 이중목적어 구문이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

(34) 師曰：“啞子吃苦瓜。”(《五燈會元》卷十四)

(대사가 말하기를 “빙어리는 쓴 오이를 먹는다.”)

(35) 師曰：“齋時有飯與汝吃，夜後有床與汝眠。”(《五燈會元》卷五)

(대사가 말하기를 “식사 시간에 당신이 먹을 밥을 제공할 것이고, 밤에는 당신이 편히 잘 침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문(30)에서의 ‘吃食’은 동의병렬식 합성어로 이 시기에 처음 생성되었다. 그 용례는 《敦煌變文集新書》에 두 개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飽足’은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吃飯’ 후미에 붙어서 ‘식사량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吃食飽足’은 훗날 ‘吃飽’로 발전하게 된다. 예문(31)~(34)을 보면 모두 ‘吃+N’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동목구조는 고대에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어법적 특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吃’과 그 목적어의 결합관계이다. ‘食’의 목적어는 거의 대부분이 고체였던 반면에 위의 예문들을 보면 ‘吃’은 고체 목적어인 ‘肉’, ‘鹽’, ‘苦瓜’ 외에도 ‘茶’, ‘酒’, ‘醋’²⁰⁾ 등의 액체 목적어와도 자유롭게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어휘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동사의 목적어가 다양해짐은 주도동사가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²¹⁾ 즉, ‘吃’은 ‘食’에 비해 목적어가 다양하므로 자연히 ‘吃’의 용례는 증가하게 되어 ‘食’을 교체하게 되는 것이다.

예문(35)에서의 ‘O2+與+O1+V’은 당송시기에 생성된 새로운 구문이다. 위의 (28)예문에서의 ‘將+O2+與+O1’과는 약간 상이한데, 그 이유는 ‘吃’이 명사적 용법이 없기 때문이다. ‘與’는 ‘상대방에게의 수여’와 ‘상대방에게 먹게 하다’라는 사역의 특징을 겸하고 있는데, ‘與’는 ‘給’으로 전환하게 된다.

4. 원명청(元明清)시기

원명청시기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먼저 어법구조를 살펴본다면 특히 당시의 주도동사인 ‘吃’은 다양한 보어들과 결합하였고, 후미에 동태조사가 빈번히 붙었

20) 당시 문헌에서는 ‘吃醋(질투하다)’와 ‘吃苦(고통스럽다)’의 의미는 발견되지 않았다.

21) ‘食’이 액체 목적어를 취한 경우는 단 1개의 용례만 발견되었다. ex) 每食一杯羹，費錢約三萬。〈獨異志，卷下〉：謝智香《漢語首部動作常用詞演變研究》(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2)，164쪽.

으며, 또한 '把'자 구문과 '被'자 구문을 형성하는 등 현대중국어와 거의 유사한 어법구조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반면, 당오조시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한 '食'은 물론 전대에 비해 발전된 동사적 특징도 존재하긴 했지만 주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飯'도 극소수의 동사 용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명사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원명청시기 '먹다'류 동사들의 구체적인 사용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4)

		文獻	吃	食	飯
元代			동사:61 명사:0	동사:1 명사:14	동사:0 명사:30
		五代史平話	동사:32 명사:0	동사:11 명사:50	동사:0 명사:18
		西廂記	동사:15 명사:0	동사:3 명사:5	동사:0 명사:14
明代文獻	山東	金瓶梅詞話	동사:2345 명사:1	동사:19 명사:172	동사:0 명사:679
	江淮	三國演義	동사:14 명사:0	동사:34 명사:139	동사:1 명사:34
		西游記	동사:932 명사:1	동사:25 명사:127	동사:4 명사:261
	吳語	警世通言	동사:401 명사:1	동사:22 명사:84	동사:1 명사:151
		醒世恒言	동사:520 명사:!	동사:9 명사:73	동사:0 명사:203
清代文獻	北京	紅樓夢	동사:1326 명사:3	동사:11 명사:77	동사:2 명사:464
		儿女英雄傳	동사:557 명사:20	동사:4 명사:76	동사:0 명사:259
	江淮	儒林外史	동사:824 명사:1	동사:0 명사:39	동사:0 명사:301
		老殘游記	동사:243 명사:!	동사:2 명사:13	동사:2 명사:149
	吳語	孽海花	동사:95 명사:0	동사:5 명사:8	동사:1 명사:62
		海上花列傳	동사:732 명사:0	동사:9 명사:11	동사:1 명사:272

1) ‘食’과 ‘飯’의 특징

원명청시기에 ‘食’의 명사용례가 증가함에 따라 그 형태는 전대보다 더 다양해졌다. ‘食’의 동사용법은 비록 거의 쇠퇴하였지만 그래도 잔존해 있는 동사 중에 기존(고대~당송)시기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용례들이 있었고, 전대와는 다른 새로운 특징들도 볼 수 있었다. ‘飯’은 당송시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명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수의 동사들의 어법적 특징은 전대보다 발전하였다.

- (36) 凡四方貢獻珍美食物, 詔不須進貢. (《五代史平話·五代周史平話卷上》)
(사방에서 진상하려는 산해진미를 조서를 내려 모두 철폐하게 하였다.)
- (37) 胡三公子叫家人取了食盒, 把剩下來的骨頭骨腦和些果子裝在裏面. (《儒林外史》第十八回)
(胡三公子은 가족에게 식함을 가져와서 남은 음식들과 귀뜨를 그 안에 담게 했다.)
- (38) 古無“面”字, 凡是面食一概都叫作“餅”. (《兒女英雄傳》第二十八回)
(고대에는 “面”자가 없었다. 모든 밀가루 음식을 “餅”으로 불렀다.)
- (39) 我夫子講到食品, 便有許多不食的道理. (《兒女英雄傳》第三十七回)
(우리 선생님께서 식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는 먹지 말아야 할 많은 이치들이 담겨져 있다.)
- (40) 村村納禾稼, 處處食香羹. (《西遊記》第六十二回)
(고을에서는 곡식을 거두어 들고, 곳곳에서는 향기로운 죽국을 먹는다.)

앞서 언급한 대로 원명청시기에 이르러 ‘食’의 동사적 용법은 거의 쇠퇴하고 반대로 명사용법이 증가하였다. 당시에 ‘食’의 명사용례들 중에는 단음절 형식을 거의 볼 수 없었다. 명사용례의 대부분은 예문(36)~(39)에서의 ‘食物’, ‘食盒’, ‘面食’, ‘食品’ 같은 이음절 명사 형식으로 존재하였다. 즉 원명청 시기 이후의 ‘食’의 명사용례는 대부분이 ‘食’이 수식어로서 다른 명사를 수식하거나 혹은 피수식어로서 다른 명사의 수식을 받아 형성된 이음절 명사들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고, 현대에는 자주 볼 수 있는 용례들이다. ‘食’의 동사적 용법은 거의 쇠퇴하여 그 용례가 많지는 않았지만 예문(39)~(40)에서와 같은 단음절 용례들도 간혹 볼 수 있었다.

- (41) 在靈山偷食了如來的香花寶燭. (《西遊記》第八十三回)
 (영산에서 여래의 香花寶燭을 훔쳐 먹었다.)
- (42) 可知太痛快了不是好事：吃得痛快，傷食；飲得痛快，病酒²²⁾. (《老殘遊記》第十一回)
 (이로써 매우 통쾌함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통쾌하게 먹으면 배탈이 나게 되고, 통쾌하게 술을 마셔도 그로 인해 탈이 날 수 있다.)
- (43) 次日五更飯畢，三軍大進. (《三國演義》第六十七回)
 (이튿날 오경에 식사를 한 후에 전군이 진격했다.)

그리고 예문(41)~(42)에서의 ‘V+O1+的+O2’ 구조와 ‘傷食’같은 새로운 형태들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예문(41)의 ‘偷食了如來的香花寶燭’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如來’는 원래 간접목적어이고 ‘香花寶燭’는 직접목적어이다. 취득류 이중목적어 구문인 ‘V+O1+O2’에서 간접목적어인 ‘O1’과 직접목적어인 ‘O2’는 의미상 소유와 피소유의 관계이므로 ‘O1’과 ‘O2’ 사이에 ‘的’이 붙을 수 있게 되어 결국 단일목적어 구문인 ‘V+O1+的+O2’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²³⁾ 그리고 예문(42)의 어휘인 ‘傷食’에 대해 언급한다면 그것은 고대의 ‘飽, 盡+V’와 흡사한 구조로 ‘食’의 앞에 위치한 ‘傷’은 식사 완료 후 배탈이 난 결과를 나타낸다. 즉, ‘傷食’과 ‘吃傷²⁴⁾’은 동일한 의미이다. 이처럼 당시에 ‘食’의 동작의 완료에 대한 것이 고대로부터 계승된 형식으로만 존재했을 뿐 현대 중국어에 가까운 형식인 술보구조(‘V+C’)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飯’은 거의 대부분이 명사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당시에 잔존한 ‘飯’의 동사용법은 대부분이 예문(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미에 결과보어인 ‘畢’이 붙어서 출현하였다.²⁵⁾

22) ‘病酒’: 《漢語大詞典》에서 검색한 결과 ‘謂飲酒過量而生病(과음해서 병이 났다)’의 의미이다. 여기서 ‘酒’가 동사용법으로 쓰였다는 점은 단언할 수 없지만 최소한 ‘病’이 과음한 결과라는 점은 알 수 있다. 참고: 《漢語大詞典》(第八卷)(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4), 292쪽 참조.

23) 齊滬揚 《現代漢語》(北京, 商務印書館, 2007), 372-373쪽 참조.

24) ‘吃傷’은 현대 중국어에서 거의 대부분이 ‘배탈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 어휘는 아마 명청시기에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고의 문헌에서 조사한 결과 《金瓶梅詞話》에서 3개의 ‘吃傷’ 용례가 발견되었는데 그 의미는 모두가 ‘너무 먹어서 질리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我與你家做女婿，不道的酒肉吃傷了. 《金瓶梅, 第八十六回》(나는 이 집의 사위입니다. 저에게 대접해 주신 술과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하여 절대로 질리지 않을 것입니다.)

2) ‘吃’의 특징

원명청시기에 ‘吃’은 거의 현대중국어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 (44) 陳經濟已是陪應伯爵在卷棚內吃完飯. (《金瓶梅》第三十三回)
 (陳經濟은 이미 應伯爵와 함께 卷棚(양 옆으로만 벽이 있고, 앞뒤로 벽이 없는 집)안에서 밥을 다 먹었다.)
- (45) 吃完了茶, 和尚又下了一筋牛肉面吃了. (《儒林外史》第二回)
 (스님은 차를 다 먹은 후 또 소고기면을 먹었다.)
- (46) 每日測字的錢, 就買肉吃. 吃飽了, 就坐在文德橋頭測字的桌子上念詩, 十分自在. (《儒林外史》第五十四回)
 (매일 문자점을 쳤던 돈으로 고기를 사먹었다. 배불리 먹고 나면 文德다리 어귀에서 문자점을 쳤던 탁자 위에서 시를 낭송하며 매우 자유롭게 지냈다.)
- (47) 咱們也算是會吃酒了, 那一壇子酒, 怎麼就吃光了. (《紅樓夢》第六十三回)
 (우리는 술을 잘 먹는 편이다. 그 술 단지 속의 술을 벌써 다 먹었다.)
- (48) 到底富家女子嬌養慣的, 心上又急, 又苦勞了一會, 晚上就發燒. 到了明日, 湯水都吃不下. (《紅樓夢》第九十一回)
 (끝까지 부잣집의 딸을 돌봐야 했다. 조급한 마음에 너무 고생하여 저녁에는 열이 났다. 내일은 아마 뜨거운 물조차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위의 예문(44)~(48)을 보면 당시 동사인 ‘吃’은 여러 보어들과 다양하게 결합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술보구조는 동사와 보어의 결합할 때 내부규칙이 있다. 예문(44)~(45)의 ‘完’은 여러 동사들과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보어로 ‘吃’ 외에도 대부분의 동사 후미에 붙어서 ‘동작의 완성’을 나타낸다. 반면 예문(46)~(48)의 ‘飽’, ‘光’, ‘下’ 등의 보어는 동사와의 결합이 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전음절의 동사와 후음절의 어법이 의미상 연관성이 있을 때 상호간에 조합한다는 同向規則(samerule)으로 설명할 수 있다.²⁶⁾ ‘飽(배부르다)’는

25) ‘飯畢’의 용례는 《三國演義》에 1개, 《西遊記》에 3개, 《警世通言》에 1개, 《紅樓夢》에 2개, 《海上花列傳》에 1개, 《老殘遊記》에 2개, 《孽海花》에 1개가 존재하였다.

26) 同向規則(same rule)란 동사와 어법요소는 의미상 서로 연관성이 있을 때 자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론이다. 張志毅, 張慶雲 《詞彙語義學》(北京, 商務印書館, 2012), 183-184쪽.

반드시 신체로 흡입하는 동작과 연관된 동사인 '吃'과 '嚼'하고만 결합한다. 그 이유는 배부른 결과는 먹거나 마셔야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光(남김없이 다 없애다)'은 '用', '花' 외에 '吃', '嚼'과도 빈번히 결합할 수 있다. '吃'과 '嚼'은 음식물과 음료들을 모두 없앨 수 있는 동작이므로 '光'과 빈번히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下(수용하다)'는 '容' 외에 '吃', '嚼'과도 자주 결합할 수 있다.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는 '수용'이라는 의미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결국 동사인 '吃'과 보어 '飽', '光', '下' 등은 의미상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상호간에 자주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이후 혹은 현대중국어에서 동사와 보어 간에 의미상 상관이 없는 '听光', '摘飽', '咬下' 등의 결합관계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 (49) 看見夫家一鍋裏煮飯，一卓上吃食。(《醒世恒言》第二卷)
 (시댁에서 밥을 지어 식탁에 앉아 먹는 광경을 보았다.)
- (50) 方才我去給太爺送吃食去。(《紅樓夢》第十一回)
 (방금 나는 어르신께 먹을 것을 보냈습니다.)
- (51) 寶釵也不理他，暗叫襲人快把定心丸給他吃了。(《紅樓夢》第一百回)
 (寶釵도 모른 척하니 몰래 襲人으로 하여금 그에게 진정제를 먹이게 했다.)
- (52) 他五百年前吃了這城國王及文武官僚，滿城大小男女也盡被他吃了乾淨。
 (《西遊記》，第七十四回)
 (그는 오백 년 전에 이 성의 왕과 문무관료들을 먹었다. 성 안의 남녀노소들이 모두 그에게 먹힌 것이다.)
- (53) 我們才自自在在吃那和尚一塊肉。(《西遊記》第二十回)
 (우리는 비로소 마음대로 그 스님의 고기 한 덩어리를 먹을 수 있었다.)

예문(49)에서의 '吃食'은 동사용법이고, 예문(50)에서의 '吃食'은 명사용법이다. 원명청 시기에 '吃食'의 동사용법도 존재하긴 하였지만 대부분이 명사용법이었다. 현대중국어에서 '吃食'의 동의병렬식 합성어 용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현대에서 가장 가까운 원명청시기에 '吃食'의 동사용법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문(51)의 '把+O2+給+O1+V'구문은 전대의 'O2+與+O1+V'에서부터 발전된 것이고, 예문(52)의 '被'구문은 과거의 피동형식인 '爲+人+所+V'에서부터 발전된 것이다. 예문(53)에서의 '吃那和尚一塊肉'은 전대부터 생성된 취득류 이중목적어

구문(V+O1+O2)으로 현대중국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54) 你看那案子是不要緊的呢，你們得了錢，用刑就輕些，讓犯人不甚吃苦。

(《老殘遊記》第十六回)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당신들이 돈이 있으면 감형될 수 있고, 죄인들도 그다지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55) 你疑惑我多得了主子的錢，我疑惑你多得了主子的錢，爭風吃醋打吵起來。(《儒林外史》第四十五回)

(당신은 내가 주인의 돈을 더 받았다고 의심하고, 나는 당신이 주인에게 돈을 더 받았다고 의심했다하여 우린 서로 질투하여 싸우기 시작했다.)

예문(54)과 (55)에서의 ‘吃苦’와 ‘吃醋’는 ‘먹다’의 의미에서 변화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인데 이 시기에 처음 생성되었다. 어휘의 의미가 변화하는 원인 중 하나는 본래 의미와 새로운 의미의 상호 연관 작용 때문이다. 어휘에서의 새로운 의미는 어휘의 본래 의미를 기초로 사람들의 연상작용에 의해 생성되게 된다. 만약 새로운 의미가 기존의 의미와 상호연관이 있으면 그 어휘의 새로운 의미는 보편화된다. 예문(54)에서의 ‘吃苦’가 바로 그 예이다. 앞서 언급한 예문(34)에서의 ‘吃苦瓜’는 ‘쓴 오이를 먹다’라는 동목구조이다. 오이이든 과일이든 쓴 것을 먹게 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사람들은 고통을 연상하게 되어 훗날 ‘吃苦’는 ‘고생을 맛보다’라는 새로운 의미로 전환된 것이다. 그리고 어휘의 의미변화는 역사·사회적 배경에서부터 기인될 수 있다. 예문(55)에서의 ‘吃醋’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²⁷⁾ ‘吃醋’의 본래 의미는 ‘식초를 먹다’이지만 대략 당조시기 때 한 역사 속의 사건에서 생성된 ‘질투하다’의 새로운 의미가 오랜 세월에 걸쳐 일반화 되어 굳어지게 된 것이다.²⁸⁾

27) 趙克勤《古代漢語詞彙學》(北京, 商務印書館, 2010), 124쪽.

28) 10가지 이상의 관련고사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한 가지 역사적 스토리를 소개하겠다. 당조시기에 이세민이 공을 많이 세운 방현령에게 상으로 아름다운 미인을 하사하려 하자 그의 아내는 이를 거부했다. 화가난 이세민이 그의 아내에게 거부한 대가로 독주마시길 명령하자 그녀는 남편에 대한애정 때문에 결국 그 독주를 마셔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죽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녀가 마신 것은 독주가 아닌 식초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상 이세민은 방현령에게 첩을 하사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이때부터 ‘吃醋’는 ‘질투하다’의 의미가 생성되어 현재에는 그 의미가 보편화된 것이다. 참고: 黃茂

Ⅲ. 현대방언 분포상황

현대한어방언 대사전에서 ‘먹다’류 동사인 ‘吃’、‘食’、‘飯’의 분포상황에 대한 조사는 아래와 같다. (+는 존재부호이고, X는 부존재부호이다. 동사는 1로 표시하였고, 명사는 2로 표시하였다.)

(표5)
(관화, 진어와 오방언)

지역		官話							晉語	吳語		
		北京	濟南	洛陽	成都	武漢	南京	揚州	忻州	上海	杭州	溫州
어휘	吃1	+	+	+	+	+	+	+	+	+	+	+
	吃2	X	X	X	X	+	X	X	+	X	X	X
	食1	X	X	X	X	X	X	X	X	X	+	X
	食2	+	+	+	+	+	+	+	+	+	+	+
	飯1	X	X	X	X	X	X	X	X	X	X	X
	飯2	+	+	+	+	+	+	+	+	+	+	+

(기타 남방방언)

지역		贛語		湘語	客家語	閩語			粵語	
		萍鄉	南昌	長沙	梅縣	福州	廈門	海南	廣州	東莞
어휘	吃1	+	+	+	X	X	X	X	X	X
	吃2	X	X	X	X	X	X	X	X	X
	食1	X	X	X	+	+	+	+	+	+
	食2	+	+	+	+	+	+	+	+	+
	飯1	X	X	X	X	X	X	X	X	X
	飯2	+	+	+	+	+	+	+	+	+

일반적으로 남방방언에는 대부분 古語들이 존재하는 반면, 북방방언에는 구어체적 성격이 강한 新語들이 존재한다.²⁹⁾ 실제로 위의 (표5)를 보면 新語인 ‘吃’은 북방 전 지역은 물론 심지어는 남방 지역에까지 그 용례가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古語인 ‘食’은 일부 客家, 閩, 粵 방언 지역에만 존재하며, ‘飯’의 동사용례는 현대방언에서 완전히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남방지역에 古語들이 잔존한 원인은 무엇일까? 李如龍(2006)은 명조시기부터 관화방언이 북방에서 남방지역으로 널리

蘭 〈“吃醋”一詞的來源及詞義演變〉:《時代報告(學術版)》2012年1月.

29) 劉寶霞、張美蘭 〈言語動詞“商量”、“商議”的歷時演變及其分布特點〉:《清華大學學報》2013年第6期.

보급됨에 따라, 많은 남방지역의 고유 방언들은 관화방언의 영향으로 소실되었으나, 遠江地帶(양자강에서 먼 지대)에 위치한 남방(吳語, 客家語, 閩語, 粵語)방언 지역의 어휘들은 관화방언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므로 현재까지도 그 지역의 고유한 언어들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³⁰⁾

연구자가 客家語, 閩語, 粵語 방언 등을 조사한 결과 ‘食’은 여전히 동사로서의 사용이 활발했다. 예를 들면, ‘食飯(밥을 먹다)’, ‘食肉(고기를 먹다)’:(광둥. 민어. 객가 전지역)/ ‘食閑口(간식을 먹다)’:(廣州)/ ‘食齋(야채를 먹다)’:(廈門)/ ‘食早(아침밥을 먹다)’:(福州)/ ‘食斗(점심밥을 먹다)’:(海口)/ ‘食夜(저녁밥을 먹다)’:(梅縣)/ ‘食晏(저녁밥을 먹다)’:(廣州)이다. 그리고 이미 중국어에서 ‘먹다’ 의미의 범주를 벗어난 ‘吃醋’와 ‘吃苦’에 대한 용례들도 발견되었다. ‘食醋(질투하다)’:(梅縣)/ ‘食苦(고통을 맛보다)’:(廈門)³¹⁾

遠江地帶(양자강에서 먼 지대)에 속한 吳語방언 지역도 원래는 古語들을 잘 보존했지만 그 지역의 杭州(‘食飢(:먹다)’용례 존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대부분 ‘吃’이 주요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명청시기 때 이미 粵語방언 지역에서 ‘吃’이 활약했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방언 분포상황은 어휘들이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증명해주는 객관적 자료이다. 어휘들의 현대 분포상황은 대부분의 경우 명청시기 때 결정되어 계승된다.

IV. 나오는 말

본고에서 도출된 몇 가지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고에서 연구한 ‘吃’, ‘食’, ‘飯’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선진시기부터 이미 존재했던 ‘食’은 당조시기까지 주도동사였으나, 위진남북조시기 때 생성된 ‘吃’은 당조시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당오조시기부터는 ‘食’

30) 李如龍 《漢語方言學》,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6), 265-270쪽.

31) 위의 방언분포 상황과 어휘의 예문들은 모두 許寶華의 《漢語方言大詞典·一, 二, 三, 四, 五卷》을 기초로 조사한 결과이다. 許寶華 《漢語方言大詞典·一, 二, 三, 四, 五卷》(北京, 中華書局, 2002), 2卷: 1908-1935쪽, 2卷: 2793-2801쪽, 3卷: 4290-4230쪽.

을 교체하고 주도동사가 되었다. 그 원인은 ‘吃’의 지배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용례가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주도동사가 된 것이다. ‘飯’은 상고시기 때는 동사의 용례가 다소 존재하였으나 중고시기 이후로는 거의 쇠퇴하였다. 그리고 공시적 관점인 현대방언 분포현황 조사로 분포범위가 가장 넓은 ‘吃’이 현대에 ‘먹다’ 의미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동사이고, 분포범위가 비교적 좁은 ‘食’은 동사적 용법이 거의 쇠퇴한 어휘이며, 전 방언지역에 동사용례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飯’은 동사적 용법을 완전히 상실한 어휘임을 입증하였다. 본고에서는 통시와 공시적 관점을 상호 연계하여 접근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 어휘의 현대적 면모는 역사적 변천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현대중국어에서 ‘吃’과는 달리 ‘飯’과 ‘食’이 주로 명사용법으로 사용되는 원인을 알아냈다. 앞서 언급한 대로 ‘飯’은 고대에는 ‘먹다’ 의미의 동사였으므로 선진과 양한시기에는 동사의 용례가 어느 정도 존재하였으나 위진남북조시기 이후로는 거의 명사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食’은 비록 선진시기 때 주도동사이긴 하였지만 고대에 그 어원이 ‘쌀 한 톨’이었으므로 당시에 ‘먹을 것’이라는 의미의 명사도 존재하였다. ‘食’의 명사용례는 당조시기 때 증가하기 시작하여 원명청 시기에 이르러서는 ‘食’의 동사용법이 거의 쇠퇴하고 명사용법이 활약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飯’과 ‘食’의 동사용법은 역사 속에서 쇠퇴한 반면 두 어휘의 명사용법은 근대 이후로 급속히 증가했으므로 오늘날 두 어휘의 동사용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米飯’, ‘食品’, ‘食物’, ‘食堂’, ‘食盒’ 등의 명사용례들은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먹다’류 동사와 보어의 결합관계와 그 내부규칙을 밝혀내었다. 술보구조는 원명청시기 이후로 증가하였다. 당시에 ‘飯’과 ‘食’의 동사용법은 거의 쇠퇴하여 그들이 보어와 결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吃’은 다양한 보어들과 결합하였다. 여기서 연구자는 어떤 보어는 모든 동사의 후미에 붙는 반면에 대부분의 보어들은 반드시 동사와 의미적 연관성이 있을 때만 결합할 수 있다는 내부규칙을 알게 되었다. 즉 ‘동작의 완료’의 의미를 지닌 ‘完’은 모든 동사 후미에 붙을 수 있으나 나머지 보어인 ‘飽’, ‘光’, ‘下’ 등은 同向規則에 따라 ‘吃’과 의미적으로 연관이 있을 때만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이론은 중국어 교육현장에서 동사와 보어의 결합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³²⁾

넷째, 어법구조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취득’의 의미적 특징을 지닌 ‘먹다’류 동사는 ‘취득’류 이중목적어 구문(V+O1+O2)을 형성했다. 이 구문에서의 ‘O1’과 ‘O2’는 영속관계이므로 명칭시기 이후에는 중간에 ‘的’이 삽입되어 전환된 ‘V+O1+的+O2’ 구문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대부터 당송시기까지 ‘食’은 수여구문 내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였다. 명사용법이 거의 없는 ‘吃’은 당송시기 때는 ‘與+O1’의 수식을 받아 형성된 수여구문인 ‘O2+與+O1+V(吃)’가 존재했고, 이는 명칭시기 때에 ‘把+O2+給+O1+V(吃)’구문으로 발전되었다.

【參考文獻】

- 董秀芳《詞彙化·漢語雙音詞的衍生和發展》成都, 四川民族出版社, 2002.
 貢珂〈飲食義“吃”對“食”的曆時替換〉,《才智》, 2009.
 黃茂蘭〈“吃醋”一詞的來源及詞義演變〉,《時代報告(學術版)》, 2012.1.
 李如龍《漢語方言學》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6.
 李玉嬌〈試論由“食”到“吃”的演變過程〉,《江西金融職工大學學報》, 2006第2期.
 李宗江《漢語常用詞演變研究》,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9.
 劉寶霞、張美蘭〈言語動詞“商量”、“商議”的曆時演變及其分布特點〉,《清華大學學報》, 2013年第6期.
 齊滬揚《現代漢語》, 北京, 商務印書館, 2007.
 邱冰《中古漢語詞彙複音化的多視角研究》,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11.
 王鳳陽《古詞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3.
 王國珍〈“喫”“食”“飲”曆時替換的不平衡性及其認知〉,《古漢語研究》, 2010年第1期.
 王青、薛遜〈論“吃”對“食”的曆時替換〉,《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05年第5期.
 謝智香《漢語手部動作常用詞演變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許寶華《漢語方言大詞典·一、二、三、四、五卷》, 北京, 中華書局, 2002.
 【漢】許慎 撰【清】段玉裁 注《說文解字注》,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6.

32) 연구자의 분석결과 ‘完’뿐만 아니라 ‘到’, ‘成’, ‘錯’ 등도 대부분의 동사 후미에 붙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결과 보어들은 의미상 연관이 있는 동사들과 결합한다. 위의 보어들 외에도 가령 ‘給’, ‘住’, ‘出’ 등의 보어도 있는데 ‘給’은 반드시 수여동사들과만 결합하고, ‘住’는 고정된 의미를 지닌 ‘停’, ‘站’, ‘記’ 등의 동사와만 결합하며, ‘出’은 ‘안에서 밖으로 이동’이라는 의의소를 지녔으므로 이와 의미상 연관이 있는 동사 ‘挖’, ‘掏’와 자주 결합한다.

- 張美蘭《漢語雙賓語結構》，北京，清華大學出版社，2014.
張志毅、張慶雲《詞彙語義學》，北京，商務印書館，2012.
趙克勤《古代漢語詞彙學》，北京，商務印書館，2010.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achronic evolution of the verbs of “eat”(“飯(fan)”, “食(shi)”, “(吃)chi”). In ancient time, “飯(fan)”, “食(shi)” was existed. “(吃)chi” was existed Weijinnanbei Dynasty. “(吃)chi” took over “食(shi)” from The tang and five dynasties up to now. The word “飯(fan)” wasn’t the dominant word. Through research, The author found the reason why “飯(fan)”, “食(shi)” mian used as a noun in modern times.

This paper also researched the relationship of verbs of “eat” and “完(wan)”, “飽(bao)”, “光(guang)”, “下(xia)” and found the reason why the words for the concept of “eat” often collocate with “飽(bao)”, “光(guang)”, “下(xia)”.

Final, This paper Showed the regional divergenc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verbs of “eat”.

【主題語】

‘먹다’류 동사, 교체, 역사적 변천, 주도동사, 지역차이

“吃食”类动词, 替代, 历时演变, 主导词, 地域差异

Verb of “eat”type, took over, Diachronic, Dominant words, regional divergence

투고일: 2017. 01. 15 / 심사일: 2017. 01. 20 ~ 02. 13 / 게재확정일: 2017. 02. 15